

〈제 75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제7회 광주화루 시상식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0일, 본점에서 제7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광주화루 10인의 작가’ 전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회 광주화루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 작가 10인의 작품 24점을 전시해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광주화루 10인의 작가展’은 2024년 2월 7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펼쳐지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개방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금융을 넘어 지역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주 · 전남 대표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창립 55주년 기념 천원밥상 '해 뜨는 식당'에 백미 55포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창립 55주년을 맞아 광주 동구 대인시장 ‘해 뜨는 식당’에 백미 55포를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고 밝혔다.

해 뜨는 식당’은 13년째 단돈 천원의 가격으로 백반을 판매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온 식당으로, 나눔의 광주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공동체의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해 뜨는 식당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광주은행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광주 터미널부지에 럭셔리·초대형 백화점 짓는다



신세계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부지에 쇼핑·문화·예술의 중심을 담당할 복합문화 거점을 만든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도심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축 완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광주터미널이 자리한 광천지구는 광주의 원도심과 글로벌 업무중심지로 변모할 상무지구, 광역 교통 중심지 송정지구 등 신도심을

잇는 광주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터미널 연간 이용객 수만 480만명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에 랜드마크 백화점을 짓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통해 광주 도심경쟁력을 높ی겠다. 또 144만 광주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지역 최대·최고 수준의 시민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 유전체와 AI를 활용한 노화질환 예측기술 개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노화 질환 예측 및 진단을 위한 유전체 기반 AI시스템 개발(총괄책임자 원성호 서울대 교수)' 연구과제 일환으로 유전체를 활용한 한국형 노화 질환 예측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대, 조선대 등 총 5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원성호 서울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노화질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

프로젝트 총괄책임자인 서울대 원성호 교수는 “한국인에 특화된 다유전자 기반해 치매 등 노화질환 예측모형을 개발했으며 특허등록,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대기업-협력업체 릴레이 안전 캠페인 전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2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 단지에 소재한 (주)호원 대강당에서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릴레이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호 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천의지를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기아오토랜드 광주사업장 및 협력업체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안전문화 추진 활동의 일환이다.

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릴레이 캠페인이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실천의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지역 내 제조업체까지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 도입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응급의료센터 환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약품을 투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약품관리가 가능한 전자동약품분배 캐비닛 시스템 인티팜(INTIPharm)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사전에 등록된 권한자의 지정맥 인증(손가락 정맥 박동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 후 처방에 따른 약품을

자동으로 인출 관리가 가능한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ADC · Automated drug Dispensing Cabinet)을 도입했다.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ADC 시스템은 지난 2021년 이미 도입해 사용 중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전자동약품분배캐비닛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처방 등 약품 불출 관련 업무가 간소화되고, 유효기간 등 데이터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약품 이송 및 공급 업무 자동화로, 직원은 환자와 더 가까이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헬스케어 연구 협력 네트워크 출범



전남대학교병원이 카카오헬스케어 등 국내 대형병원들과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Research Alliance)’를 출범했다.

이번 연구 협력 네트워크는 개방형 혁신 원칙에 따라 모든 참여 병원들이 제약 없이 데이터와 기술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병원 내부 및 병원 간 연구, 그리고 병원과 기업 간 연구 등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며, 병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병원들과 최고 IT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네트워크가 의료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맞춤형 환자 치료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KPS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2023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8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자체감사활동심사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에는 공기업군

36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감사실은 내부통제의 최종 방어선 조직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설계·운영의 효과성 점검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기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가품질경영대회서 ‘품질명가’ 수상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등급 선정 및 품질 분임조 부문 대통령상(금상2·은상1)을 수상했다.

한전KPS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등급에 24회 선정되면서 ‘명예의 전당’ 회원기업의 영예를 이어갔으며, 더불어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도 27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발전정비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비기술 개발과 정비산업 플랫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나아가 그린에너지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29회 금요조찬포럼>

디지털 경제 수도 광주, 바보야 문제는 수요혁신이야

(김현성 대표)

1629회 금요조찬포럼은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디지털 경제 수도 광주, 바보야 문제는 수요혁신이야」를 주제로 전쟁의 원인과 앞으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정의했을 때 낡은 것이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안감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회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권력의 변화입니다.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 넘어 갔습니다. 그동안 경제활동에서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격도 정하고, 생산량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면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거 등장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의 주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CES나 실리콘밸리 창업가들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 회사의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력이 뛰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소비자에게 외면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은 본인들 슬로건을 ‘소셜 솔루션’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일기획은 광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때 공급자 중심에서는 공급을 혁신하자, 제품을 혁신하자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지금은 수요를 혁신해야합니다. 기업에게 판로와 마케팅, 유통을 개척해주는 것이 역할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선 공약입니다. 미국산을 사자 미국산을 사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공 조달을 미국산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엘지, 한화등 대기업이 100조를 미국에 투자합니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하나로 미국은 한국에서만 100조의 투자를 가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혁신의 슬로건을 바꿔야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할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야합니다.



1. 경제 동향

◆ 통계청,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1.23)

- 202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2% 증가)

*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1인 가구 및 농림어가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분기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추이 : 3.0('22.3q)→ 4.1(4q)→ 4.7('23.1q)→ △0.8(2q)→ 3.4(3q)

- 소득항목별로 경상소득은 재산소득(16.5%), 이전소득(11.7%), 근로소득(3.5%)이 증가했으나, 사업소득(0.8%)*은 감소. 비경상소득**은 23.0% 감소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은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에게 받은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 2023년 3/4분기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하위 20%)가 112만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했으며, 소득 5분위(상위 20%)는 1,084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

- (1분위 소득) 경상소득은 재산소득(51.8%), 이전소득*(5.1%)이 증가했으나, 사업소득(△12.7%), 근로소득(△9.2%)이 감소

* 공적이전소득은 8.1%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2.1% 감소(전년동기대비 기준)

- (5분위 소득) 경상소득은 재산소득(35.0%), 근로소득(6.5%), 이전소득(5.2%)*이 증가했으나, 사업소득(△0.1%)은 감소

* 공적이전소득은 11.2%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3.0% 감소(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3년 3/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5배로 전년동기(5.75배) 대비 0.20배p 하락하여 상·하위 가구 간 소득분배 개선

Ⅲ. 노동경제동향

*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목적으로 「가구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로 산출(OECD기준)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발표 (11.21)

○ 2023년 3/4분기 말 가계신용*은 1,875.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4.3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4.5조원 증가)

* 가계신용 :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부채를 의미

※ 분기별 가계신용 추이(조원) : 1,867.6('22.4q) → 1,853.1('23.1q) → 1,861.3(2q) → 1,875.6(3q)

- 2023년 3/4분기 말 가계대출은 1,759.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1.7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2.3조원증가), 판매신용은116.6조원으로전분기말대비2.6조원증가(전년동기대비2.2조원증가)

※ 분기별 가계대출 추이(조원) : 1,749.8('22.4q) → 1,738.7('23.1q) → 1,747.4(2q) → 1,759.1(3q)

※ 분기별 판매신용 추이(조원) : 117.7('22.4q) → 114.5('23.1q) → 113.9(2q) → 116.6(3q)

◆ 국제통화기금(IMF),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17)

○ 2023년 11월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는 IMF의 미션단이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에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

* 국제통화기금은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

〈 보고서 주요 내용 〉

○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치(1.4%)를 유지

○ 또한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Ⅲ. 노동경제동향

* 2024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치(2.2%)를 유지

- 한편,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3.6%, 2024년 2.4%*를 기록하고, 2024년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 전망치(3.4%) 대비 0.2%p 상향 조정, 2024년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 전망치 (2.3%) 대비 0.1%p 상향 조정

-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023년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
- IMF는 2024년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정상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할 것을 권고.
- 또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

◆ 한국은행,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11.21)

-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0.1%), 서비스(0.1%) 등이 올랐으나 농림수산물(△5.5%)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월비) : △0.2('23.6)→ 0.3(7)→ 0.9(8)→ 0.5(9)→ △0.1(10)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0.3('23.6)→ △0.3(7)→ 1.0(8)→ 1.4(9)→ 0.8(10)

- (농림수산물) 수산물(1.3%)이 올랐으나 농산물(△5.9%), 축산물(△6.0%)이 내려 전월대비 5.5% 하락(전년동월대비 5.8% 상승)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1.4%) 등이 내렸으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0.8%), 화학제품(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1.0% 하락)

Ⅲ. 노동경제동향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산업용도시가스(3.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서비스) 운송서비스(0.5%),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23년 10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2.1% 하락),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 1.8% 하락)
-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2. 노사 동향

◆ 여당과 고용부는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 강조

○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11. 28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지난 11. 17 법제처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은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 재의를 요구해야 함.

○ 여당은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에 이어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진행

※ 필리버스터 참여 인원 : 여당 의원 약 60명

- 여당 의원들은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을 ① 불법파업 조장법, ② 특권노조와 손잡기 위한 총선용 법안, ③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 강조

○ 또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1. 22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의 일방적 의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언론 등을 통해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 시사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해책임 제한으로 기업은 재산상 손해를 입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와 별개로 대정부 투쟁은 유지한다는 방침

○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지난 11. 13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11. 17「중앙집행위원회」개최

Ⅲ. 노동경제동향

- 한국노총 일부 산별연맹들은 이 날 회의에서 ▲노조법 제2조·3조 거부권 불행사, ▲노동계약중단 등 전제조건 없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되 대정부 투쟁 방침은 유지할 것이며, 노조법 제2조·3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발언
-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 방침을 유지하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노동개혁 의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 개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은 지난 11. 13 고용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1. 17 경사노위에서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등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 표명

◆ 고용부는 원·하청 상생 확산 방안 모색

-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11. 20 현대차·기아 및 자동차 부품협력사와 함께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 ※ 고용부는 조선업(2월), 석유화학 산업(9월)에 이어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간 상생모델구축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아닌 노사간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분	주요 내용
현대차, 기아	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②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③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④ 경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실행
협력 업체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② 연구개발·생산성 향상 노력
정부	■ 대기업-협력사-전문가-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Ⅲ. 노동경제동향

- 또한, 고용부는 업종별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에 이어「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중인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

※ 고용부는 지난 2. 2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 「상생임금위원회」는 지난 2. 24 2차 회의에서 ▲업종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업종별 심층면접(FGI)를 거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